

농식품부, 2차 종자산업 5개년 계획 5년 내 수출 2억달러 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 아래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3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식품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설립,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골든시드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수출기반을 마련했고, 로열티대응연구사업도 추진해 로열티 지불액을 지난 5년간 162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7.2% 감소시키는 성과를 창출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종자수출 목표 2억 달러 달성에 세계 13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2차 종합계획은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체 역량 강화의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부안 양잠·울릉 발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 및 제9호로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 '울릉 화산섬 발 농업'을 각각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은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를 사육하기까지 일괄 시스템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지면적의 41.4%(24ha), 농가 수의 80%(40가구)가 양잠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울릉 화산섬 발 농업은 화산이 분출한 후 화구가 함몰된 칼데라 지형과 급경사지를 밭으로 일구어 울릉도 자생 식물을 재배하는 발 농업기술이다.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산자원의 조사 및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3년간 15억 원, 총사업비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줄 News

산업

- ▲ 지난해 최악의 '수주절벽'을 겪은 **국내 조선업**들이 '일감 확보'에 총력을 펼친다.
- ▲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V30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올해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 ▲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2018'에서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전송 규격인 '컨더볼트3'를 지원하는 QLED 커브드 모니터 'CJ791'을 공개한다.

금융·마켓·부동산

-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1등 금융그룹' 재탈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관리, 투자는행 등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공약은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강화다.
- ▲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이로 인해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원이 창출될 전망이다.
- ▲ **라이프**
- ▲ 인사동 쌈지길에 지하로 이어지는 **쌈지쌈지길**을 오픈하며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
- ▲ **정운찬 KBO 총재**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연간 로드맵을 공개했다.

새해 첫 일정으로 현장 찾은 중기중앙회 회장단

“좋은 일자리 만들어 구직자 中企로...”

박성택 등 중기중앙회장단 안산 대모엔지니어링 방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왼쪽 두번째)와 경기 안산에 있는 대모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무술년 새해 화두를 '좋은 일자리'로 잡았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떠났던 구직자들의 발걸음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자는 뜻에서다.

이를 위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3일 경기 안산에 있는 대모엔지니어링에서 올해 첫 외부일정을 시작했다.

이노비즈협회도 지난 한 해 본회와 전국 9개 지회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36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단일기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청년 고용에 '올인'하고 있다.

박 회장을 비롯해 이흥우·심승일 부회장 등이 이날 찾은 대모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74억원 매출 가운데 70% 가량을 유럽, 인도,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거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포크레인 등의 팔 역할을 하는 고철절단기, 브레이크, 멀티프로세서, 크라샤 등이 대표 제품군이다.

이 회사는 이미 2011년에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이듬해엔 '월드클래스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 대모엔지니어링의 진짜 자랑거리는 수출이 아니다.

4곳의 해외법인을 포함해 총 인원이 125명으로 중소기업인 이 회사는 경영 실적에 따라 연말에 받는 성과급을 포함하면 대졸 초임이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이익분배금만 연간 평균 450%에 달한다. '돈'이 직장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직자가 외면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초임 4000만원' 짜리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인식도'가 46.8점으로 종합인식도 51.4점을 크게 밑돌았다. 한마디로 돈을 적게 주고, 복지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중소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는 "2006년엔가 예상보다 회사가 큰 성과를 냈었다. 그래서 성과를 나눴더니 임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더라(웃음)"며 "이후부터 형편 당해대로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눠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모엔지니어링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본사가 있는 안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각종 포상제도도 두루 갖추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는 회사에서 모두 책임진다. 승진시 토익 등 어학 성적은 필수이면 학원 비용은 회사에서 대준다.

박성택 회장은 "대모엔지니어링과 같은 회사가 2만개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애로에서 벗어나 생산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1명을 새로 채용하면서 이 가운데 19명을 청년으로 채용했다.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들은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재를 키워 회사와 동반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협회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회원사 6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본급은 평균 2864만원으로 일반 중소기업(2232만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229억 달러 '사상 최대'

전년 대비 7.7% 늘어나
3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목표인 2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29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20.9% 증가한 12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는 1~3분기 전년 대비 9.7%

93억6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외국인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협력 수요 증대,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부동산과 도소매 등 일부 서비스업 투자 증가, 정부 설명회 등 투자유치 노력이 최대 실적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70억6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64.9% 증가한 6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47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29.0%

감소한 9억5000만 달러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한 18억4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2.0% 증가한 12억3000만 달러다.

중국의 신고 기준으로 60.5% 감소한 8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8.7% 감소한 2억 달러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증가와 신소재,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41.2% 증가한 72억5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최신용기자 grandtrust@

“통화량-거시변수 연관성 약화… 보완지표 도입해야”

韓銀 'BOK 이슈노트'

저금리·고령화로 통화량이 늘어 도 경제성장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박경훈 과장, 심연정 조사역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해외부문 역할이 커지면서 통화량과 거시변수 간 연관성이 약화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가계나 기업의 은행 대출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 경제 소비 및 생산 확

대, 성장 등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 같은 '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광의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등 집계변수로 살펴봤을 때 통화량과 거시변수 간 연관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다만 통화량 분석에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외하고 부문별로 통화량을 분석하면 거시지표와 유의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여전히 통화량은 정보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경훈 한은 과장은 "최근 통화량과 거시변수와 연관성이 약해진

것은 한국경제의 저금리·고령화 현상 탓"이라며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늘어난 점도 통화량과 거시변수의 연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과장은 저금리·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통화정책에 '보완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화량의 경기 및 물가예측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보고서는 저금리·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여 내국인 해외 저축을 제외하고 해외부문 영향을 제

고한 지표, 이자율 등 거래적 기능에 가치를 부여한 지표, 가계 소비 및 기업 생산 변화 등을 바탕으로 통화량과 거시변수 사이 관계를 분석한 결과 M2, Lf 등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 분석 등이 물가,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체 통화량(M2)을 봤을 때보다 가계 통화량(가계 M2)과 기업 통화량(기업 M2)으로 한정해보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민간소비나 총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봉준 기자·김현정 인턴기자 bj35sea@